

전직 민주당 대표의 신당 움직임... 호남 민심 화났다

“지역이 키운 정치인 총선 앞 분열 앞장... 호남정치사 이런 일 없어”
광주·전남 출마자·민주 인사들 ‘이낙연 리스크’ 분노의 목소리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호남정치사에 없었던 혼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공식화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의아심은 물론 분열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새해에 새 희망과 함께하겠다”며 내년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도 분산될 수 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 12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2월께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신당창당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과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창당 의지를 드러낸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대선 경선 후보까지 모든 주요 영역을 섭렵한 호남의 상징적인 정치인이 당이 절박한 순간에 분열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은 제1야당인 민주당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며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 정치는 시대 정서와 맞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만난 지 오래돼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민심을 받아들여야 할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 분열은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바람

을 언급하면서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시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광주는 그 기억 때문에 하나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도 이날 규탄문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창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 행위다”고 비판했다.

고문단은 이 전 대표에게 “민주당 분열을 조장하는 창당을 당장 멈추고 선당후사의 큰길에 민주당과 함께 정권을 심판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화합하고 연대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길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당과 당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입지지도도 이 전 대표 창당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 동남을 출마 예정자인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는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보로 총선 압승을 바라는 민주당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표였고, 민주당을 정치적 배경으로 쫓길만 걸어왔던 분으로서 지금이라도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갑 출마 예정인 정준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향해 힘을 보태 싸워도 부족할 판에 당내 분란질로 모자라 제 우물에 침을 뱉으면 역사의 죄인만 될 뿐이다”고 할애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지난 12일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을 고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을 고치려는 것보다 울타리를 허무는 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 전 대표를 ‘사쿠라’ (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했던 김민석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여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이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대해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면서 새 우물 파는 것, 새 우물 장사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신당을 창당하려면 사람, 조직, 자금 이 세 가지 3요소가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당을 옮겨서 그 말로나 노후가 좋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NY(낙연) 리스크’라고 본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셔야 한다”고 불야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쪽방촌 사람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6면
광주일보 제10기 독자위원회의 ▶11면



네덜란드를 국민 방위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크 반 덴 호버 IMEC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윤 대통령,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드레아스 페처 ZEISS SMT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 “공급망 위기 함께 극복”

경제·안보·산업 협의체 신설 합의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정상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

드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평생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하고 이행해나가는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양국 공동성명에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 동맹’이란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간 안보 협력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협력 강화의 목표와 의미,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경제 안보의 핵심 이익을 결정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를 합

계 돌파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 당국 간 연례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 당국은 또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대화를 설치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김 차장은 “경제 안보·산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양자 협의체 신설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공급 협력 관련 MOU 체결은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중·일 e스포츠대회 15일 여수서 개막

3일간 현장·유튜브 실시간 중계

15일부터 3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가 주최하는 ‘2023 한중일 e(에) 스포츠대회’가 열린다. 올해 3회째로, 한국·중국·일본의 우호 증진과 동아시아의 e스포츠 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획돼 3개국에서 순환해 열린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를 맡았다.

이번 대회는 최초 대면 개최로 진행된다. 공식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이펙트 4개 종목의 각각

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것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쟁한 한국 대표 선수단이 선발된 가운데 특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인 김동현, 김성현, 권순빈, 최영재 선수가 출전해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또 대회 기간 문화행사로 ▲배틀오브스쿨(리그 오브레전드 학교대항전) ▲아빠의 청춘(스타크래프트·스트리트파이터 대회) ▲국가대표 팬미팅(스트리트파이터 김관우 선수·FC온라인 박준혁 선수) ▲게임체험존 ▲팝업스토어가 진행돼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국내외 관람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중계를 통한 전남홍보, 게임 콘텐츠 산업 발전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체육관광관은 “이번 대회는 전남의 게임산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도가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게임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15일 오전 11시부터 무료 현장관람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한국 e스포츠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 e스포츠협회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t@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